

과학자들의 倫理의식

지구의 구석구석에서 일어나는 과학의 급속한 발전과 변화는 우리들을 놀라게 하고 어떤 면에서 불안하게 하고 있다. 학교에 가지않고 교육 받을 수 있고 또 직접 만나지 않고도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첨단 정보시대. 그러나 이러한 정보의 집중은 편리를 가져다 주는 대신 약용의 가능성도 많아지고 있다. 어느 시대에도 변함없이 중요한 것은 사람과 사람간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건전한 사고임을 알아야한다.



李東信
(경희대 정경대 교수/신문방송학)

휴대전화의 발전은 인류의 꿈을 실현 시켰다. 이제 걸어가면서 통화를 하는 모습은 흔해졌다. 위성을 이용한 휴대전화의 기술은 곧 지구의 어느 구석에서도 서로간에 통화할 수 있는 시대를 실현시키고 있다.

컴퓨터의 발전은 더욱 눈이 부시다. 모든 정보는 데이터베이스를 중심으로 해서 구축되고 세계 어디서나 원하는 정보는 쉽게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시물레이션기술의 극대화인 가상현실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운전연습을 실내에서 할 수 있게 되고, 군인은 전투훈련을 방안에서, 의사는 수술을 환자없이도 실습할 수 있게 되었다.

과학의 발전은 눈부신데 ...

세계를 연결하는 인터넷은 그대로 정보의 바다이다. 인터넷의 바다에서는 파는 정보도 많지만 공짜로 건질 수 있는 정보도 무제한이다. 인터넷을 이용한 사업도 유행처럼 퍼져나간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컴퓨터 한대 뿐이다. 사무실을 차릴 필요없이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정보를 공급하면 된다.

필요한 정보는 인터넷의 바다에서 얼마로 사거나 공짜로 건지면 된다. 집에서 수업을 하는 재택수업이나 원격수업은 이미 실시되고 있다. 교육을 받기 위해서 학교까지 가던 시대는 지났다. 교수는 연구실에 앉아서 강의하고자 하는 주제를 전자게시판에 올리고, 학생들은

집에서 그 주제에 맞추어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컴퓨터로 쳐서 보내기만 하면 된다. 학기말에는 학생들은 보고서를 교수의 컴퓨터에 보내면 되고 교수는 그것을 보고 평가를 해서 다시 학생의 컴퓨터에 보낸다.

과학으로 인한 언론의 변화는 더욱 놀랍다. KBS와 MBC만으로 만족해야 했던 우리는 이제 30가지 이상의 방송을 시청할 수 있다. 앞으로 위성방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1백개 이상의 방송을 마음대로 골라서 시청할 수 있는 시대가 곧 다가올 것이다.

전자화시대의 언론매체는 전자신문이다. 신문은 그 정보 전달의 신속성에 있어 방송의 적수가 되지 못했다. 그러나 전자신문은 이러한 신문의 고민을 단숨에 해결해 준다. 독자들은 원하기만 하면, 즉시 컴퓨터화면을 통해서 소식을 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프린터에서 편집된 신문을 받아볼 수도 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지금의 신문처럼 그냥 신문을 받아 볼 수도 있고, 원하는 내용만으로 편집된 신문을 받아볼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방송뉴스처럼 움직이는 화면을 보내줄 수도 있을 것이다.

미래의 사랑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요즘 젊은이들은 이미 직접 만나지 않고 사랑을 나누는 전화나 삐삐, 그리고 컴퓨터통신을 통한 간접적인 사랑에 익숙해져 있다.

사이버섹스의 사랑은 이보다 더 간접

적이고, 순간적이며, 쾌락적이다. 기계앞에 앉아 자신이 원하는 상대에 관한 자료를 입력하면 만사는 끝난다. 위험한 것은 기계를 통해서 하는 사랑은 인간들의 사랑처럼 불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이 원할 수 있는 최대 한도의 만족을 준다는 점이다.

영화 '론머맨'은 미래의 인간들이 오히려 체액을 교환하는 육체적인 접촉을 불결하게 느낀다고 말하고 있다. 지구의 구석구석에서 일어나는 과학의 급속한 발전과 변화들은 우리들을 어떤 면에서는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과학이 곧 생명이 되는 시대는 인류의 모든 것이 극도로 발전을 하고 그것이 곧 행복으로 연결되리라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한다.

그러나 미래에 관한 반대의 예측은 반드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예를 들어 과학의 발전으로 인한 과도한 정보의 공해는 사람들을 정보마비상태에 이르게 할 수 있다. 한 사람이 정보를 받아들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

정보의 집중 약용 가능성도

또 정보는 반드시 필요하고 좋은 정보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정보를 접하는 사람들이 그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그 정보의 진의는 왜곡될 수 있다. 더구나 악의를 가진 정보원들은 고의적으로 정보를 왜곡할 수도 있다. 또 정보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도 나타난다. 경제적인 또는 지식수준에 의한 정보의 격차는 좁혀지기보다는 넓혀질 가능성이 많다.

컴퓨터의 발전은 어디까지 계속될 것인가? 영화 '2001년 우주오디세이'에서는 스스로 판단을 내리고 결정할

수 있는 컴퓨터가 등장하여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는 우주인들을 살해한다. 이제 그러한 컴퓨터가 등장하여 인간들의 발전을 방해하게 되는 것이 기우만은 아니다. 이미 우리 사회에서는 전자카드를 둘러싼 프라이버시 침해문제도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전자카드에는 혈액형, 거래은행 등 개인에 관련된 많은 정보가 담겨있다.

전자카드는 편리한 점이 많기는 하지만 이것을 악용하는 경우 개인이 피해를 볼 가능성은 너무나 많다. 정보의 집중은 편리를 가져다주는 대신 그 악용에 대한 가능성도 높여준다.

이런 점에서 보면 과학은 반드시 인간의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사회의 붕괴를 위해서도 똑같은 가속도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만일 사람들이 컴퓨터를 통한 관계를 맺는 데만 만족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기피하려 한다면 인간관계의 모든 도덕이나 질서는 파괴되고 말 것이다.

컴퓨터만을 통한 교육은 사제간의 인간적인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교육의 상품화를 가속화시킬 것이다. 이성을 만나려하지 않고 사이버섹스에 빠져든다면 인간세계의 남녀관계는 파괴되고 성은 본래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오로지 쾌락으로서의 의미만이 확대된다.

해부학이나 생명과학의 발전은 프랑켄슈타인박사를 현대에 재등장시킬 수 있다. 이미 많은 인체기관이 사람이 만든 인조기관으로 대체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전자의 조작을 통해서 예를 들면 머리좋은 아이, 잘 생긴 아이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때가 오게 된 것이다.

그것은 인류사회의 발전을 가져온다기 보다는 인간사회의 획일화를 초래하여 결과적으로는 단조롭고 무의미한 세계를 만들 뿐이다. 과학기술에 의한 위성방송과 유선방송 등 첨단 매체의 등장은 사람들의 외부활동을 제한하고 있다. 모든 오락과 문화활동은 집에서 이루어진다. 이미 영화관이나 연극관은 비디오와 유선방송에 밀려 관객을 잃어버리고 있다.

중요한 것은 건전한 사고방식

외부활동의 감소로 인간들의 관계맺음도 양적으로 감소하고 질적으로 저하된다. 사람들은 결국 TV화면에 나타나는 현상만으로 만족하게 되고 이웃이나 친구관계를 회피하게 된다. 과학의 발전이 곧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되는 유토피아를 보증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런 점에서 과학자들의 윤리의식은 대단히 중요하다.

과학의 발전은 인간사회를 더욱 자유스럽고 풍부하게 하는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어느 시대애나 변함없이 중요한 것은 사람과 사람간의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건전한 사고방식이다. 그렇지 않을 때 과학은 인간사회의 불행과 종말을 알리는 신호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겠다. ①7

